

데스크 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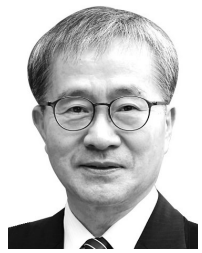
박성천 여론매체부 부국장

역사에 가정(假定)은 없다고 한다. 이미 벌어진 일은 주위 답을 수도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에 가정이 허락된다면 조선시대 소현세자의 죽음을 되돌렸으면 어떨까 싶다. 청나라에서 귀국한 소현세자(1612~1645)가 급사(急死)하지 않고 왕위를 계승했다면 조선의 미래는 어땠을까, 라는 상상의 발로다. 인조의 첫째 아들이었던 소현세자는 다음 보위를 이을 후계자였다. 그러나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 불모로 끌려가 심양에서 8년을 보낸다. 그리고 학수고대하던 고국으로 돌아온 지 두 달 만에 의문의 죽음에 이른다. '인조실록'에는 시신의 구혈에서 피가 흘렀으며 약물에 중독된 것 같다는 기록이 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인조와 조정의 미움과 모함으로 소현세자가 독살됐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진실 밝히려는 노력에 쏟아진 관심

인조는 왕을 폐위하고 새로운 임금을 옹립하는 반정을 통해 보위에 올랐다. 반기를 든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명분이 있는 거병이지만 반대파의 시각에서는 명백한 '쿠데타'였다. 어렵사리 보위에 올랐지만 인조는 사리에 어둡고 아둔한 왕이었다. 급변하는 주변 정세를 읽지 못한데다 국정은 오만과 아집, 무능으로 일관했

은펜칼럼



심명섭 문체부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순회사서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1964년 이래 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설정하여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홍보,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국민들에게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책과 도서관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력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도서관이 국가의 문화와 교육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서다.
오늘은 지난 2021년 12월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제1회 도서관의 날'이며 1주일간은 '도서관 주간'이다. 매년 달력을 쳐다볼 때마다 수많은 각종 기념일이 수록되어 있지만 유독 도서관의 날은 없어서 오랜 기간 책과 함께한 도서관쟁이로서 아쉬움이 컸는데 이제는 마음 한편이 채워져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법정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도서관 직원의 57.1%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

기고



황옥주 수필가

일본 마루야마 마사의 "죽은 이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죽은 이들은 슬퍼한 방법도 없다"는 시 구절은 깊은 사유를 강요한다. 오에 겐자부로가 '새해 인사'란 책 속에 인용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 그 뒤는 정들었던 사람들에게 슬픈 남겨준다. 그러나 불자들의 글에는 환생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달이라 라마 말고도 석유산 스님의 '여보게, 저승 갈 때 필 가지고 가지'란 책에도 놀라운 얘기가 실려 있다.
전생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느 여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아들이 너무 귀여워 "어쩌다가 네가 내 새끼로 태어났지?" 하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자 "전에 엄마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왔어" 하는, 하도 맹랑한 대답에 아들이 말한 액수의 돈을 장난 삼아 주었다니 "고마워. 이전 그만 가 볼게" 하며 갑자기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얘기가.
사람의 혼백(魂魄)은 살아서만 공존하고 죽으면 길이 달라진다. 혼은 백을 떠나 허공을 돌아 하늘에 오르고 혼 잃은 백은 땅에 묻힌다.

전두환의 업보와 손자 우원 씨의 사죄

다. 결과는 무참하고 가혹했다. 나라는 도탄에 빠졌고 수많은 백성이 병자호란으로 고통과 죽임을 당했다. 인조 자신도 남한산성에서 삼전도로 나와 세 번 무릎을 꿇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의 항복 의식을 치렀다.
소현세자가 급사하지 않았다면(독살이든 병사든) 조선의 미래는 달라졌을지 모른다. 그는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조선에 전파하고 싶었다. 선진 문명과 학문을 도입해 조선을 새롭게 바꾸고자 했던 포부는, 인조의 협랑과 과도한 권력 집착에 막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얼마 전 전두환 씨의 손자 우원 씨가 광주를 찾아 사죄를 했다.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자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 손자가 광주를 방문한 것은 그 자체로 센세이션이었다. 학살자도, 쿠데타 세력도 아닌 단지 핏줄이라는 이유로 광주에 와 사죄를 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마약에 취해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행동이라는 뒷말도 있었다. 우원 씨는 진정성에 대한 우려를 씻어 내려 유튜브를 통해 마약 사실과 자신의 죄악을 공개했다고 언급했다.
우원 씨의 광주 방문은 일거수일투족이 뉴스였다. 27세 청년의 사죄는 오랫동안 맺혀 있던 광주시민들의 응어리를 다소나마 풀어주었다. 그는 "5·18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며 그 주범은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듯 말했다.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는 최연소(11살) 희생자였던 전제수 군의 묘소에 들러 정중히 무릎을 꿇었고, 검정색 의투를 벗어 묘비를 닦았다.
특히 우원 씨가 속소 인근 빨래방에서 분사 기자와 가졌던 즉석 인터뷰가 유튜브에 방영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11일 현재 조회 수가 84만 5000에 육박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그는 영상에서 "정말 저희 가족들이

양의 탈을 쓴 놈들이었구나, 진짜 양들은 따로 있었구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처받으신 분들, 낙담하시는 분들, 슬퍼하시고 증오가 가득한 그 마음이, 희망 이랑 믿음이랑 사랑이랑 빛이 가득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 드리는 것 같습니다"라고 덧붙혔다.
그의 발언은 상당 부분 기독교 신앙에 토대를 두고 있다. '양' '빛' '믿음' '사랑' '기도' '하나님' 등의 어휘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핵심 키워드들이다. 종교를 차치하더라도 그의 사죄와 치유의 기원은 울림을 주기에 충분했다.

광주시민 응어리 다소나마 풀어줘

의외인 것은 우원 씨의 아버지 전재용 씨와 계모 박상아 씨 또한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이다. 2021년 모기독교 방송에 출연한 전 씨 부부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 눈길을 끈 적이 있다. 전재용 씨는 현재 백석대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경기도 모 교회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탈세 혐의로 201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재용 씨가 진정 목회자의 길을 가려는 신앙인이려면 진실을 밝히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한편으로 우원 씨는 귀국 후부터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다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이다. 전두환의 쿠데타로 획득한 부와 재물을 누렸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본력이 센 사람들'에 속하는 가족을 무서워한다는 것이 일견 이해가 가지만 한편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견강부회(牽強附會)이었으나 역사 속 소현세자가 불측 떠오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려니 싶다. 물론 소현세자와 우원 씨를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다. 그럼에도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는 젊은 우원 씨의 의지는 가상에 보인다. 결국 빛은 어둠을 이긴다.

경계 없이 비추는 문화의 빛, 도서관

가 나왔다. 도서관의 날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낮아 서글퍼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 개정 사항이나 행사 추진 시 도서관에 대한 국가적 홍보와 함께 언론사·블로그·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그동안 도서관이 독서 진흥을 위해 수행한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가 있었지만 도서관 주간은 역사나 의미에 비해 국민 결의로 다가가지 못하고 그동안의 행사로 진행되어 온 점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역사적인 제1회 도서관의 날과 제59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 각종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여 향후에는 전 국민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한다.
독서는 개인의 지적 성장과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전제 조건이며,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과 사회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온 것은 비단 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집안 씩씩에 씩씩은 떨어질지언정 책 읽는 소리가 그치는 것은 부끄럽게 여기는 등 독서를 인격 수양과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여기며 중요시해 왔다. 이에 따라 독서를 국가 경쟁력의 근원으로 파악해 독서 진흥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각종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광범위한 사회의 각 분야이므로 관련 실질 분야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요하다. 독서 정책은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독서 환경 조성

으로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독서 운동 전개로 독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전 국민이 독서 생활화에 이르게 한다면 당장에 눈에 보이는 효과는 미미해 보일지라도 국가 경쟁력 향상의 근원으로 작용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된 제59회 도서관 주간 표어는 '경계 없이 비추는 문화의 빛, 도서관'이다. 한국도서관협회와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는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행사를 다채롭게 펼친다. 도서관의 독서 진흥 활동은 다양하다. 4월 도서관의 날, 도서관 주간, 세계 책의 날, 5월 어린이 독서의 달, 세계도서전, 8월 여름방학 독서 교실, 9월 독서의 달, 독후감 쓰기 대회, 10월 서점의 날, 12월 겨울방학 독서 교실, 독서 캠프, 각종 독서회 등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나 방식이 관행적이거나 의례적으로 진행된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책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독서 저해 요소를 제거하는 일도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영상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무엇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학습과 꾸준한 실천 활동 전략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챗GPT,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왔다.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독서하는 풍토 없이 국가는 결코 세계의 중심 문화권이 될 수 없다. 함께 읽고, 토론하면서 생활 공동체의 중심인 도서관에서 가장 가치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 보자.

죽은 이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얼마 전 나는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가 5일 만에 깨어났다. 의식이 없다는 건 혼이 나가 죽어 있는 상태다. 나기버린 혼을 붙잡아 백과 다시 이어준 것은 어떤 절대자가 아니면 불가능 뿔났다. 사람 능력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육신과 교류하는 영의 실존을 믿을 수밖에 없다.
5일간은 120시간이다. 그간 나는 믿기지 않은 꿈 같지 않은 꿈을 경험했다. 아내와 등산을 나섰는데 하필 그 산이 고향 산산이었다. 한 골짜기 입구에 이르자 무슨 공사를 한다며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쓴 사람들이 새 길을 안내해줬다고 나갔다. 얼마 가지 않아 우리같이 투명한 문이 앞을 막았다. 다가서자 스스로 열리고 뒤이어 '철컹' 하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본 순간 문은 닫혔는데 안내자들은 어느새 밖에 나가 있었다. 아내는 다른 길로 안내되었는지 보이지 않아 불만했다.
주위를 둘러봤다. 여러 개의 방들이 있대어 있고 그 위는 눈으로 바로 볼 수 없을 정도의 밝은 전선이 사방으로 얽혀 있었다. 한 전선에 검은 나비 한 마리가 앉아 빛을 따라 도는데 나비가 접근하면 방문이 열리고 닫혔다. 의자도 없는 공간에 서서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더 애타는 것은 아내의 행방이었다. 아내도 어디에 갇혀 있는지 이름을 부르며 그 곳으로 보내 달라고 소리쳐도 밖의 안내자들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애태우런 검은 나비가 내 방 쪽으로 다가왔다. 문이 열리기가 바쁘게 미친 듯 밖으로 뛰어나오니 현실의 아내가 거기에서 있었다. 침대 앞이다. 아내는 내 얼굴을 만지며 울고 나는 그 손을 쓰다듬으며 울었

다. "천주님! 말 한마디도 못 나했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물만 마시고 원망과 애원으로 기도만 올렸었다.
아내는 태중에서부터의 천주교 신자다. 나도 천주교 신자가 되기로 신부님 앞에 다짐하고 성당에서 혼배성사를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신부님과의 약속은 하느님과의 약속"이라는 성화를 50년 넘게 들었다. 퇴직을 하자 변명거리가 없어서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엉터리 신자다.
맛있는 아내는 간병은커녕 결국 자기 몸도 추스르지 못하고 최악의 상태에서 몸져눕고 말았다. 갖가지 질병에 시달려 온 몸이 갑자기 남편마저 기절했으니 그 충격이 오죽했을까.
불현듯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 생각났다. 아야코는 일본에선 아주 드문 기독교 작가다. 연재되는 동안 선풍적 인기를 일으켰으나 주인공인 요코의 자살로 소설이 끝나 독자들의 원망이 빗발쳤다. 천사 같은 요코를 죽게 해서 안 된다는 항의였다. 성화 속에 요코를 살려 이어 쓴 게 '빙점'의 속편이다.
요코는 독자들이 살려냈고 나는 절대자의 은혜를 입어 살아났다고 믿고 있다. "죽은 이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데 요코도 나도 죽지 않았기에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왔다.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빙점이 있다. 원죄가 없었으면 빙점도 없다. 용서할 이유도 없다. 원죄는 길을 벗어난 것이다. 지난날을 회억해 보니 잘못하고도 아닌 착 시치미 댔던 일들만 떠오른다. 이웃들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며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社說

광주·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머리 맞대야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입기에 들어간 가운데 서남권 거점 공항인 무안국제공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민간 공항이 동시 이전하는 대구·경북과 달리 광주·전남은 자칫 무안국제공항과 광주 민간 공항, 군 공항이 각기 다른 지역에 자리 잡아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안국제공항은 2007년 11월 개항 당시 광주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의 동시 이전이 추진됐으나 광주 일각에서 민간 공항 이전에 반대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민선 7기 들어 다시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민간 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옮기고 군 공항 이전에도 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또다시 군 공항 이전이 표류하자 광주시는 민간·군 공항 이전 연계 정책 목표자의 길을 가려는 신앙인이려면 진실을 밝히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한편으로 우원 씨는 귀국 후부터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다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이다. 전두환의 쿠데타로 획득한 부와 재물을 누렸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본력이 센 사람들'에 속하는 가족을 무서워한다는 것이 일견 이해가 가지만 한편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견강부회(牽強附會)이었으나 역사 속 소현세자가 불측 떠오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려니 싶다. 물론 소현세자와 우원 씨를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다. 그럼에도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는 젊은 우원 씨의 의지는 가상에 보인다. 결국 빛은 어둠을 이긴다.

'나는 재선충, 기는 방제' 인력·예산 확충 급하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이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돼 고사한 소나무가 광주시는 2018년 네 그루에서 2021년 764 그루로, 전남도는 2018년 5800여 그루에서 2022년 1만 8000여 그루로 급증했다. 그동안 '청정 지역'이었던 나주와 화순 등 지까지 번지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하늘소류의 매개충 몸속에 있는 1mm 내외의 소나무재선충이 소나무에 침입해 발생하는 병이다. 일단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는 뾰족한 지료병이 없다. 사전에 예방주사를 투여하거나 감염된 주변 20m 소나무를 모두 베어 내야 한다. 주변 감염목은 약품 처리한 뒤 일정 기간 천막으로 덮어 두는 훈증 처리를 하게 된다. 방제목을 무단 이동하거나 판매·이용할 때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된다.
이처럼 치명적인 소나무재선충병이 최근 몇 년 새 광주·전남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인력·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 광산구의 경우 예찰과 방제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은 세 명, 여수시는 20여 명 수준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부족한 인력 탓에 방제가 소나무재선충병 번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은 더욱 기세를 부릴 전망이다. 광주·전남 지자체들은 산림 예찰·방제 인력과 예산부터 대폭 늘려 소나무재선충병에 총력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같은 매개충인 하늘소류가 우화(羽化)하는 시기가 만큼 철저한 방제 작업으로 소나무재선충 확산을 저지해야 한다. 더 이상 인력·예산 확보로 방제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와 역사와 애환을 함께하며 이 땅을 지켜 온 소나무가 더 이상 말라죽지 않도록 재선충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내야 하지 않겠는가.

無等鼓 (No Equal Drum) article content with sub-headers like '삼권분립' and '헌법'.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